

10강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 11)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함
-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배움
- 거짓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구분하기를 배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요한복음의 분수령

- 표적의 절정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마지막 날 신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차원
- 9장 맹인을 고쳐주신 표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면(9:3), 11장의 나사로 사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11:4).
- (레이먼드 브라운 Raymond Brown) 표적 사역을 종결짓고 영광의 사역을 개시하는 시발점—
 - 요한복음의 전반부(1~12장)는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1~12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고 후반부(13장 이하)에서 다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연결부다.
 - 11~12장은 요한복음의 분수령
- 12장으로 가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12:16,23,28,41).

영광

(요 11:4)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1.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놀랍고 완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만큼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 없다.

2. 십자가 죽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적: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나사로 사건은 많은 유대인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라기 보다 예수님 살해 음모를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다(45~53).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주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약속된 풍성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주요 스토리라인(1~16)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일어난 비극]

- 마리아: 복음서에 두루 기록된 여인(마 26:6~13; 막 14:3~9; 요 12:1~8)—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마리아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요 11: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 26: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요 11:3)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 11: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고의적 지체]

(요 11: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 주님은 철저히 계산을 하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었다.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 했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병고침의 기적이 아니었다.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약 40km 떨어진 베다바라—처음에 세레 요한이 세레를 베풀던 곳—에 계심(추정)—(10:39~40)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이곳으로 피하셨다.
-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을 때(나사로는 아팠고) 주님은 다음 두 날을 지체하셨고 넷째날 아침에 출발 하사 저녁 즈음에 도착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나사로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던 그날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신다. 말하자면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 충분한 시간이 흘러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기다리셨다. 주님께서서는 이 순간을 위하여 고의로 이틀이나 지체하셨다.

[제자들의 착각]

1. 첫번째 착각: “주님께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로 가는 모험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 11:8)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 11:9~10)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시간 개념: 낮과 밤 각각 열 두 시간씩으로 구분
 - 아직은 해—이 세상의 빛—가 있는 낮이니 일할 때다.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요 5:19; 6:38,39).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낮이라는 말이다. 주님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밤이 오지 않는다. 그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요 8:20). 그러나 밤이 온다. 그 때가 오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 주님의 관점—“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에 내가 올라가야 한다”
 - 주님께는 한 명이나, 만 명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기준이다.
2. 두번째 착각: “나사로가 회복 중이니까 유대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12~13).”
(요 11:12~13)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 자기 안전, 자기 문제 중심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3. 세번째 착각: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무모한 결정을 하셨다(도마, 16).”
(요 11: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 무지한 충성은 참된 믿음의 요소가 아니다.

새로운 관점들

고난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옳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전형이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이다.

이 표적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틀을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시간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두 가지 차원

- 높은 차원: 하나님의 영광(4)

(요 11:4)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 낮은 차원: 제자들의 믿음(15)

(요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통해서이다.
- 믿음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
- 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다.

‘때’와 ‘영광’

- ‘때’와 ‘영광’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중요한 두 개념.
-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는 구속사 최대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재의 축복

-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대조적이다).
-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Severe mercy)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기초한다.”
 -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미국의 영문학자 쉘던 베너켄(Sheldon Vanauken)이 쓴 자서전의 제목
- 하나님은 부재하심으로 일하신다.

친구를 위한 죽음 – 주님의 죽음의 성격

(요 15:12)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관원들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신다.

(요 11:11)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 정녕 친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고 두고 이 나사로 사건을 생각나게 했을지 모릅니다.

(요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력한 실존과 연약한 신앙(21,32)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선언(25~26)

(요 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 “나는 ~~~이다.” “I AM ~~~.”
2.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3. “나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영생의 본질과 정의에 따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영생은 결코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끊어지지 않으며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르다의 신앙과 고백

1. 부족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요 11: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 신앙은 자기 이성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요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28~44)

주님의 분노

(요 11: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 마리아의 울음과 유대인들의 울음: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실존 그리고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에 승복해버린 사람들을 마주하심—본성적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력한 모든 인간을 대표
- 죄의 결과인 죽음, 인간을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마주하심
- 당신께서 파괴하려 온 마귀의 권세와 마주하심—(요 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 주님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너머,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간을 데리고 들어간 사탄의 악을 보고 계신다.
- 생명의 창시자가 죽음의 세력을 스스로 짊어질 때, 쫓겨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눈물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감상주의적 해석: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36)
- 자의적 해석: “그렇게 사랑했으면 좀 일찍 와서 고쳤어야지!”(37)
-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참함,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이 된 인간의 비참함을 인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의 명령: “돌을 옮겨 놓으라.”

(요 11:39~41a)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 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a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의 기도

(요 11:41b~42)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 주님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42): ‘저희로 믿게 하려 함’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믿음은 함께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요 5:19~21)

(요 11:41b~42a)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40, 43~44).

(요 11:43~44)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건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

유대인들의 믿음과 불신

유대인들의 믿음

(요 11: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직접적 결과 중 주목할 것은 조문을 와서 이 표적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45).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나사로 표적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불신: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 11: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발했다(46).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 기적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47~50)

- 서로 반목하던 산헤드린의 두 당파, 대개가 서기관(율법사)들이 바리새인과 성전의 권력 상층부를 형성했던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행 4:26~28; 시 2:1~3).

(요 11:47)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 11: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 대제사장 가야바의 부지중의 예언(?)

(요 11:49~50)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로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53),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고하면 체포하여 죽일 것을 결의하다(57).

물러가심(54) — 모든 주도권은 주님 자신에게 있다.

(요 11: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오늘의 적용

-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 믿는 자만이 자신의 삶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 하나님의 부재의 축복, 고난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나침반 바이블
BIBLE